

# 국제석유시장의 안정과 산유국 · 소비국간 대화체제의 구축

## 1. 머리말

70년대는 세계 역사상 미증유의 석유위기를 두번이나 겪은 그야말로 石油의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폭적인 油價폭등으로 재원이 서방선진국을 비롯한 石油 소비국에서 산유국으로 급격히 이전되어 경제의 低성장, 高인플레이션이 보편화되자 선진국 일각에서는 그들 경제의 미래에 관해 많은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동시에 새로이 발생한 오일달러라는 유동성을 관리할 국제금융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소비국들은 급격한 油價폭등 및 공급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4-77년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산유국과 소비국의 협조를 위한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시들어 버렸다. 이와같이 대화가 시들어 버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몇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금융제도의 원만한 활용으로 오일달러의 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오일달러는 산유국들의 상품수입 代錢으로 또는 선진국으로의 금융투자 등으로 선진소비국으로 대부분 환류되었다. 그결과 소비국 경제 및 국제금융제도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고, 소비국들의 산유국과의 대화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한편, 석유수출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21세기까지 石油

가격 및 공급에 관한 통제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에 별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石油와 제3세계 및 국제경제제도와 결부시켜 볼 때, 대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산유국들의 수동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의 국제석유시장을 기술함에 있어 석유파동, 오일쇼크, 석유혁명등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하나, 문제는 그 영향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작용했다는데에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은 첫째, 소비국 및 국제기구들이 에너지 생산소비에 대한 정책 및 태도의 변화이고, 다음으로 中東지역내 또 中東과 그 주변지역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복잡화이다.

10년이 지난 80년대에다 비록 石油공급이 중단되고 가격이 폭등되는 사태는 아니지만, 모종의 석유파동을 겪고 있다. 현재의 석유파동은 70년대와는 정반대인 공급과잉과 가격의 폭락이 그 주요 특징이다. 현재의 파동은 특히 油價가 계속 떨어질 경우, 1970년대에 돌발했던 일련의 석유위기 못지않게 심각해질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은 그 때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70년대와는 달리 아무도 산유국 소비국간 대화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OPEC의 油價안정을 위한 非OPEC 산유국들의 협조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서방 소비국들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석유 위기

(?)를 전세계 경제의 好材로 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70년대에 막대한 희생을 치른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低油價 현상은 선진공업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低油價 현상이 몇년 더 지속될 경우 제3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한다.

제3 세계 국가들은 수입원유 대전이 줄어들고 외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低油價는 이들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그러나 저유가의 플러스 효과 못지않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저유가의 플러스 효과를 느끼기 이전에 석유수출국과 中東 및 기타 제3 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부작용을 받게 된다. 몇몇 경제부문과 美國을 비롯한 몇몇 선진공업국도 역시 저유가 현상으로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低油價 현상이 계속되면 전세계적인 石油에너지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石油가격도 저렴하게 지속될 것이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산유국 소비국 할 것 없이 심각한 가격변동으로 손해를 입는 시기가 산유국과 소비국이 대화를 개시해야 할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럴때 대화를 하게되면 산유국·소비국 양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石油공급 및 가격수준을 보장할 수 있고, 국제경제 체제를 油價변동의 소용돌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다음 세기에 다칠 石油대체 에너지 개발의 속도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와같은 對話는 시장여건을 무시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여건을 조정하여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산유국과 소비국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해도 실패할 경우 소비국이던 산유국이던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油價변동과 정치·경제

70년대 석유위기가 경제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고, 연구검토가 많이 있었다. 7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오로지 석유위기 때문은 아니지만, 석유위기가 세계경제에 높은 인플레이와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또 제

3 세계 국가들의 경제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서방경제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70년대 석유 위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석유수출국들의 石油판매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 그들의 경제개발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수반해서 사회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을 비롯하여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

그러나 油價가 떨어지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도 油價 폭등때보다 덜 기울여졌다. 油價하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산유국들은 石油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다변화정책을 수행했지만, 英國,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석유수출국 경제는 여전히 석유의존도가 높다.

둘째, 70년대에는 소위 石油붐으로 中東산유국들과 기타 지역 및 제3 세계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연관이 대단히 확대됐다. 이 결과 제3 세계국가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中東 산유국들의 경제개발에 대해 취약성을 노정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석유시장의 양상이 공급과잉 현상으로 바뀜에 따라 석유수출국들은 低油價로 유발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겪어야 했다. 그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대외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페르시아灣 석유수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사회적·정치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집트의 경우 타격은 이중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石油수출국으로서 油價하락으로 인한 대가와 그의 경제구조가 페르시아灣 산유국들의 개발에 취약한데서 오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만 해도 50만명 이상의 이집트 노동자들이 페르시아灣 산유국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고 귀국해, 주요 외환수입의 원천인 해외 노동자 송금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노동력은 초과되어 심각한 실업난이 발생했다.

요르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동의 정치적 갈등이 폭발될 경우 中東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일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低油價 현상이 계속될 경우 산유국들이 겪는 어려움 외에 中東 및 제3 세계 국가들, 이를테면 시리아, 튀니지

아, 모로코, 파키스탄, 印度, 한국, 터키, 필리핀 등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低油價로 인해 原油수입대전 지급에서 커다란 이익을 볼 것이나, 다른 부문에서 받게되는 손실을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런 것이 1973년 이래 이 나라들은 中東 석유수출국들과 경제적, 상업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숙련, 미숙련 노동자를 산유국에 이주시켜 이로부터 송금을 받아왔고, 산유국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는가 하면, 합작사업 등 사업상의 해외발판을 구축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印度, 터키, 한국 등이다. 이에 대해 산유국들은 이들 나라에 값싼 原油를 공급하고 자본투자를 하는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油價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페르시아灣 연안 산유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아울러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70년대의 페르시아 연안 산유국의 빠른 템포의 경제개발이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산유국과의 거래로부터 경제적, 상업적으로 이익을 누려오던 이들 나라들은 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이익이 사라지자 관계 지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石油수출국과 기타 제3세계 나라만이 유일하게 低油價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외환수입의 거의 70%를 石油과 가스 수출로 가득하던 소련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油價하락 현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더우기 체르노빌 원자로 사건으로 원자력발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더 많은 석유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외환의 주요 가독원으로 소련이 石油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경우 소련은 페르시아灣 연안 산유국들의 石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중동전락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美國까지 低油價현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실 美國 재무성은 1986년에 약 300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 액수는 OPEC 전체가 입은 손실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요약해 보면, 油價의 대폭적인 변동은 그 방향이 어디이든지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石油 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石油 가격의 대폭 변동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요

공급의 변화에 점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기구를 개발하여 산유국·소비국 양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자는 것이다.

### 3. 低油價현상이 石油공급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의 2 차례에 걸친 石油위기가 낳은 변화를 요약해 보면, 그 첫째가 서방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둘째가 中東 이외의 지역에서 石油 및 기타에너지의 탐사개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한 결과 1973년 하루 3,970만배럴 수준이었던 이들의 에너지 소비는 1985년 3,400만배럴로 떨어졌다. 한편 세계 石油생산은 1963-1973년 기간동안 2,550만B/D만큼 늘어났고, 이에 따른 투자비용은 762억달러가 소요되었으며, 1973-1983년 기간동안은 600만B/D 증가에 4,200억달러가 투자되었다. 아울러 代替에너지 연구개발투자도 대폭 증가되었다. 石油가 궁극적으로 고갈될 유한자원이고, 또 연료 이외의 효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같은 투자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低油價현상은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더 심각한 사태를 유발시킬 것이다.

美國의 경우 석유탐사 개발비용은 25-60% 삭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石油매장량 보충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궁극적으로 美國에서의 石油 및 가스의 생산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사실 油價의 붕괴는 美國내 석유산업을 거의 황폐시켜 왔다. 지난 5년동안 美國의 평균 시추율은 8만井을 웃돌아 고갈되는 석유량을 겨우 보충할 수가 있었으나, 86년에는 3만6천井에 머물렀다.

만일 原油가격이 향후 12-15개월동안 배럴당 12-17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美國에서의 石油생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 40만개에 달하는 노후油井의 총 생산능력이 19,500-225,000B/D정도 감소
- 분출생산 즉 1차회수 산유량의 50-70만 B/D감소
- 2차 내지 3차회수법에 의한 생산량(美國 전체 생산량은 300만B/D임) 중 20-25만B/D는 경제성이 상

● 産油國과 消費國이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요소가 응크리고 있다. 더우기 對話 체제가 태동된다 하더라도 상호 의견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한층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소의 극복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실됨.

—생산비가 높은 노후油井 10만B/D가 경제적 채산성 부족으로 폐쇄됨

—투자지연으로 알래스카 원유생산이 1994—1995년에 가면 80—90만B/D 수준으로 줄어 들 것임.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美國의 국내 석유 생산량은 1987년초까지 약 100만B/D이 줄어들 것이고, 原油價格이 1987년에 15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말에 가면, 감소량은 200만B/D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석유수입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변화는 美國의 천연가스 부문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美國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과 아울러 1987년의 평균 石油가격을 배럴당 12—17달러로 가정해 볼 때, 美國 이외의 생산비가 높은 지역에서 하루 100만배럴에 해당하는 유전이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 中南美 및 멕시코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합성연료, 태양열 바이오메스등 石油대체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역시 줄어들 것이다. 低油價 현상은 지난 70년대 형성된 에너지소비패턴 및 대체에너지개발 착수등 지금까지 이룩해 온 업적을 붕괴시켜, 결국 몇몇 石油생산국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또다른 油價파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와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전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상 혼란이 반드시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전세계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체제이다.

#### 4. 산유국 소비국간 對話는 가능한가

산유국과 소비국이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요소가 응크리고 있다. 더우기 對話체제가 태동된다 하더라도 상호 의견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소의 극복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 첫번째 장애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의 반대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계 에너지시장이 자유경쟁 상태로 회복될 때만이 에너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옹호론이 美國 및 英國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石油시장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견해이다.

금세기 초부터 石油의 자유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赤線협정(Red Line Agreement), 애크너리협정(Achnary Agreement), 이란 콘소시움(Iranian Consortium) 등의 카르텔 결성사태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6년 상반기만큼 국제석유가격이 폭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22—1927년 美國이 개방정책을 취했을 때 油價구조가 붕괴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는 국제석유시장은 공급과잉현상으로 原油가 넘쳐 흐르고 있었으므로 국제석유메이저들은 산유량을 제한하고 시장에 공급량을 할당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대응했다. 그들의 시장안정화대책은 성공했다. 그것은 비교적 최근인 1972년 소위 7대메이저가 中東 원유의 91% 이상을 美國을 제외한 자유세계 석유공급의 77%를 생산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1918—1972년 기간중 세계의 석유공급 및 가격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석유메이저들이 일치단결하여 이라크, 카타르와 같은 지역으로부터의 생산을 억제하고 여타의 지역에서 산유량을 제한시킴으로써 세계 석유가격을 안정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국제적인 조치는 美國에서도 재연되었다. 1929년초 美國의 국내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美國석유협회(API)는 1928년 앵소, 셸, BP가 체결한 애크너리협정과 유사한 카르텔협정을 제안했다.

생산을 합리화하려는 이같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동부텍사스유전 등이 발견되어 또다른 도전이 닥쳐왔다. 1933년 멕시코만 연안 原油가격이 배럴당 0.5달러에서 0.1달러로 불과 며칠내에 500%나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으로 石油가스계약위원회(In-

terstate Oil and Gas Compact Commission)가 설립되고 Connally Hat Oil Act가 제정되었으며, 텍사스철도위원회(Texas Railroad Commission)의 위치가 강화되었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산유량 감축이 유효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더라면 1935—1970년 기간동안 油價가 광범위하게 변동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치는 1950년대 경제침체 타개에 주효했다. 또 세계경제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OPEC와 非OPEC 산유국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에너지시장의 팽박, OPEC세력의 강화, 中東에서의 정치적 위기등과 같은 일련의 변화속에서 국제석유메이저들의 石油시장 주도권이 상실되자 油價는 대폭 폭등되었다. 그러나 1974—1979년 기간동안 OPEC는 그들 나름대로 油價안정조치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탐사개발 생산비가 높은 非OPEC 산유국들은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초 OPEC 산유국들은 그들의 경제에 필요한 수준이 상으로 산유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석유가격은 계속 하락되는 현상을 빚어냈다.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체제를 조성하는데에 또 다른 장애요소는 산유국들의 이해관계가 한결같지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은 몇몇 石油메이저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 또는 OPEC가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70년대와는 다르다. 오늘날 주요 非OPEC 산유국들(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집트, 英國, 노르웨이, 中共, 앙골라, 시리아, 콜롬비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요 소비국에 대한 공동대책은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OPEC 산유국들도 수출原油와 제품과의 구성비, 장기적 이해관계의 차이, 할당량의 차이등 제반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석유가격 및 생산정책 등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OPEC와 非OPEC간의 협조문제에 있어서도 OPEC의 非OPEC에 대한 감산요청이 과연 세계전체 원유생산량을 줄이자는 의도인지 아니면 OPEC자신의 시장점유율 인상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또다른 문제는 이와같은 대화가 대체연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OECD 선진국들의 산업구조에

는 두가지 연료를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연료의 가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질 것에 대비하여 적어도 모종의 규제기구가 새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石油가격에 대한 대화로 인한 石油대체연료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을 더욱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다.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는 美國의 회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줄 것이다. 왜냐하면 美國의 反트러스트法 때문에 회사간 油價에 관한 토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소비국을 누가 대표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즉 각국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석유회사들, 또는 IEA 등이 할 것이냐 등이다. 특히 美國에서는 국영석유회사가 없고 석유산업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섣뜻 확정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정하여 대화에 참석케 하는 방안이다. 팽배한 자유경쟁 시장원리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대해 통찰력을 발휘한다면 OPEC를 비롯한 산유국들도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 5. 맺는 말

결국, 산유국과 소비국간 가격 및 생산에 관한 협상은 油價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부터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면 첫째 세계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둘째 지속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셋째 제3세계 석유생산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넷째 미개발지역에서의 새로운 탐사개발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석유의 수요공급이 균형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화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반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대단히 크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산유국과 소비국간 진정한 대화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OPEC Review에서)